

도내 학교운영위원장 ‘한자리에’

‘2022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소통 한마당’ 개최

학력향상·작은학교 지원·미래교육 지원 방안 논의

서거석 교육감과 도내 학교운영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250여 명의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학력 향상 방안, 작은학교 지원 정책, 미래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운영위원장은 “전북교육 학력을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그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다른 운영위원장은 “작은학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작은학교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체계적인 기초·기본학력과 맞춤형 학습 지원,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시스템 구축,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지원과 같은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과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혁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직원 수급·배치, 폐교 활용, 지역별 교육 격차 등 학교 특색에 따른 여러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학력의 토대 위에 생태환경, 평화공존과 같은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업 혁신과 다양한 창의·융합형 수업 모델 개발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해 학교 구성원 모두 존중받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지난 1일 오후 전북도교육청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250여 명의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교육감과 학교운영위원장 소통 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또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사를 보호하고, 나아가 전체 교원 대상 전문교과교육 임보함에도 가입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통 한마당 행사에는 도

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영위원장 250여 명이 참석했다. 질의 응답 후에는 김성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미래사회 교실의 모습과 4차 산업시대 교육방법 등을 제시하는 미래교육 특강도 펼쳐졌다.

정은성 기자

미래 인재 산실로 도약 준비

김제여고, 혁신학교·그린스마트스쿨 선정 잇따라

김제여자고등학교(교장 나효남)가 전북혁신학교(전북미래학교)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면서 미래인재 산실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일 김제여고에 따르면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에 선정되면서 오랜 숙원이던 후관 개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로 51년 된 후관 동 건물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서 3층 건물 중 1층만 사용하고 있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표준화된 학교 설계에서 벗어나 학교구성원의 참여설계로 진행되는 그린·스마트형 미래학교 사업이다.

특히 김제여고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학생들이 다양화된 선택과목을 수강하고 공강시간을 활용해 개인학습과 협력학습, 휴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다만, 좁은 부지내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소음과 먼지 발

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혁신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3년간 진행된다. 이는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소수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보다 세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김제여고는 지난해도 진로 중점학교, 탄소중립실천학교,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그린스마트스쿨, 전북혁신학교(전북미래학교)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운영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습지중심활동공간사업(교과교실제) 사업에도 선정됐다. 나효남 교장은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혼란스럽고 자칫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협력해 학교교육활동에 최적화된 공간,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군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국립군산대학교가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유현희 교수, 식품생명과학부)’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산대학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6억원의 사업 규모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대학교는 201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 왔다.

향후 센터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실태조사 및 방문지도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보급 △대생별 위생·영양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식중독 예방 관리, 식생활 교육체험버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해 2012년 6월 1일 설립됐다. 군산시 관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급식 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며 어린이들의 급식 위생과 영양개선에 기여해 왔다.

1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센터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더욱 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질 높은 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대 산하 조선해양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주관 워크숍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산학협력단 산하 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사업단(오정근 교수, 조선해양공학과)이 최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노베이션홀에서 2022년도 워크숍을 열었다.

전북도에 조선해양 관련 기업 및 기관인 한국중공업, 코스텍 유한회사, 케이텍수선, (주)휴먼컴퍼니, (주)삼일씨엔스, 한국선급 군산지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주)동인, 원기공사 경영 등의 기업 및 기관 대표들이 내빈으로 참가하였으며, 주식회사 동인의 정성훈 연구소장이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에게 선저 클리닝을 위한 위탁회 회전노출 탑재 수중드론 개발에 대해 강의를 했다.

사업단 소속 장학사뿐만 아니라 조선해양공학과 1~2학년 재학생을 함께 초청, 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현황을 발표하며 홍보를 함께 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북 새마을지도자대회’ 지난 2일 오전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22 전라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김판근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바람직한 노사관계 이해로 행정 역량 강화

도교육청, 오늘부터 이틀간 신규공무원 대상 노사문화 이해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6일 이틀간 과학교육원에서 2022년 신규공무원 노사문화이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임용된 신규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고용·노동, 인적자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 이해를 돕고, 전북교육의 일과 노동의 가치를 정립해 나가기 위해 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기본권 이해

하기 △공무원 단체노동조합 활동 알아보기 △교육공무원 이해하기 △과화 체험의 장을 통한 미래 교육 역량 키우기 등이 있다.

최원창 행정과장은 “이번 연수는 공직사회에 진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신규공무원들에게 공공부문 조직문화를 안내하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고용·노동, 노사관계 분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참여·소통

학생자치 문화 조성 앞장

학생인권교육센터서 결과보고회

전북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2022 학생자치활동 결과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학생자치활동 결과보고회에는 올해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학생회실 설치 지원학교의 학생회 대표,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운영과,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주체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학생회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492개교에 학생자치 전용 공간을 마련해 단위 학교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향후 학생자치 활성화 정책을 계획할 때 학생회 대표 및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 학생자치활동 결과보고회를 통해 참여와 실천 중심의 다양한 학생자치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업무 최적화 우수 아이디어 선정

도교육청, 중학교 의무진학 온라인 관리시스템 도입 등 9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2~10일까지 교육 현장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8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두 번째 학교로 중학교 의무진학 온라인 관리 시스템 도입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조 피보험인을 교육감으로 단일화 △교직원 의무연수 안내 및 실적 제출 방

법 개선 등 9건의 제안을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했다.

한편 이번엔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부서와 협의의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규수 정책공보관은 “이번 공모전은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나아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선정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하수도양환경학회 추계학술 ‘우수’

전북대 김혜빈·이수민·박진 대학원생, 각각 우수논문발표상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김혜빈(박사과정), 이수민(석사과정), 박진(석사과정) 학생이 최근 열린 한국지하수도양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혜빈 학생은 ‘Biochar의 wet-dry aging에서 토양 내 구리의 안정성 평가를 주제로 포스터 부문 우수논문발표상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연구는 가장 우수한 탄소저장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바이오차(biochar)의 환경 적용시 발생하는 특성 변화에 따른 토양 내 구리의 이동성 메커니즘을 규명한 것이다.

또 이수민 학생과 박진 학생은 각각 ‘목탄을 활용한 설파메타탄의 흡착-전기화학 산화 연계 공정 연구’, ‘실리카 인캡슐레이션(Silica Encapsulation) 작용을 통한 농경지 토양 내 중금속의 이동성 저

감’을 주제로 구두 부문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수민 학생의 연구는 생태계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인 항생제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탄과 같은 탄소계 물질을 흡착제로만 아닌 전극으로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흡착의 한계를 극복해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박진 학생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표면에 Silica layer를 생성하는 기술인 Silica Encapsulation 작용을 통해 중금속 용출을 방지해 자물로의 중금속 전이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



김혜빈 이수민 박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진입형 파트너십’ 선정

전주기전대, KOICA 주관

전주기전대대학(총장 조희천)은 2023년도 KOICA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관하는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시민사회, 대학 등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해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사업에 보완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 및 국민 의식 개선을 통해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전주기전대대학은 2008년~2018년까지 해외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몽골 발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축산 의료에 관한 선진 기술을 보급했다.

또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국제 운동주 시 낭송대회’ 개최해 운동주 시민의 문화 정신을 세계 각국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등 한류 문화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어 지난해부터 세종학당 운영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베트남 잘라이성 유아교사 양성을 통한 유아교육 접근성 확대사업이란 주제로 최종 선정됐다.



전주기전대대학은 2023년도 KOICA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전주기전대 전경.

사업 총괄 책임자인 서정숙 교수(기전유치원 원장)는 “우리 대학은 1974년부터 전주 최초 유아교육을 시작해 본교 설립 이념인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KOICA 사업을 기획했다”며 “전문성 있는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베트남 잘라이성에 보급해 베트남 내에서도 우수한 교사가 양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이 보유한 다년간 축적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ICT 기반 프로그램 및 베트남 소수민족을 위한 이중언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베트남 국민들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